



PASSENGERS: THROUGH TIME, 프랑스 아티스트

기욤 마망, 두바이에서 월드 데뷔

예거 르쿨트르는 천문 현상과 워치메이킹 사이의 연관성을 기리는 스텔라 오디세이(The Stellar Odyssey)의 하이라이트이자, Made of Makers 프로그램에 따라 프랑스 비주얼 아티스트인 기욤 마망에게 특별히 의뢰한 새로운 예술 설치 작품 *Passenger: Through Time* 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2022년 5월 발레드주에서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스텔라 오디세이 전시회와 함께 2월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계 제작과 장인 정신, 예술 사이의 오랜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Made of Makers 는 탄생 190 주년을 맞이한 예거 르쿨트르를 정의하는 핵심 원칙인 창의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깊이 있게 표현합니다. 창의력과 수공예 기술력을 갖춘 장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랑 메종의 가치를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통해 새로운 표현 형태를 탐구하는, 워치메이킹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적 수준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Made of Makers 를 통해 우리는 워치메이킹과 예술, 기타 창의적인 분야의 실천이 어떻게 살아있는 경험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가 전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상상력을 정교한 예술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감각에 도전하며 강렬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식, 음악 및 디지털 아트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찾고 있습니다.”

기욤 마망은 조각과 공간,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재정의하는 정교하면서도 인상적인 관계를 그려내며 빛과 소리,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그의 작품은 지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물리학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지와 서사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관람객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사색과



성찰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이 작품의 가장 깊은 매력은 관람객에게 거의 초월에 가까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개념적인 동시에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선보이려 노력합니다. 항상 실험할 새로운 도구를 찾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특히 이에 도움이 됩니다. 빛을 다룰 때 우리는 과학적, 예술적, 철학적, 신비주의적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제 작업은 1950년대 이후 빅토르 바사렐리(Victor Vasarely)나 프랑수아 모렐레(François Morellet) 같은 예술가들이 시작한 연구를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러리에서 작품을 가지고 나와 대중 공간에 선보이고, 새로운 유통망을 찾고자 하는 강한 바람도 있습니다.”

기욤 마망의 작업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구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항상 현실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와 건축, 물리학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번 예거 르쿨트르 의뢰 작품에서의 천문 현상과 같은 주제를 통해 자연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서 오늘날의 양면성을 표현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는 “기욤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전했습니다. “그의 작품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경외감과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방식은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련되면서 근본적으로 복잡한 그의 시스템은 위치메이킹과의 평행선을 이룹니다. 시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Passenger: Through Time* 은 그랑 메종의 스텔라 오디세이 테마를 탁월하게 표현합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예거 르쿨트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욤 마망은 찬사를 받은 그의 설치 작품인 *Passengers* 의 새로운 장을 선보입니다. 그 두 번째 챕터인 *Passengers: Through Time* 은 천체 및 천체 관측에 초점을 맞추어 방문객 또는 ‘승객’ 에게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는 시간과 공간, 빛 사이 연관성에 대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기욤 마망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과제는 하늘 관찰과 시간 측정 간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자, 시계 제작자와의 논의를 통해 시공간의 연결고리를 전사할 수 있는 설치 미술을 고안했습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의 열정적인 기획 단계에는 아티스트와 그르노블 행성 및 천체 물리학 연구소(Institute of Planetology and Astrophysics of Grenoble) 간의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해 현대 지식의 관점에서 시간과 우주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모델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집한 데이터를 전사하기 위해 생성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현실의 수학적 기반에 순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몰입적이고 인상적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워크스루 캡슐 안에 포함된 운동 장치를 통해 시각적, 음향적 움직임과 무한한 반사, 현기증이 날 듯 아찔한 원근법을 선사하는 설치 작품은 방문객(승객)이 주인공이 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 세계로 데려갑니다. 승객들의 마음속에 펼쳐지는 빛과 소리, 움직임의 정교하고 인상적인 조화는 우주의 광대함을 담아내어, 시간이란 실제로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 두바이는 놀라운 도시입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및 장르, 표현 형식에 매우 개방적인, 활발한 지역 예술 현장에서 표현됩니다. 기욤의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캐서린 레니에는 말합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은 두바이에서 공개된 후 스텔라 오디세이 전시의 일환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목적지를 여행하며, 각 지역의 태양력과 지리 좌표에 맞춰 비주얼 및 사운드 콘텐츠를 계속해서 수정함으로써, 천체 현상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표현합니다.

Passengers: Through Time 은 스텔라 오디세이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4일 토요일부터 23일 목요일, 매일 오후 2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두바이 다운타운 두바이 분수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욤 마망 소개

프랑스에서 출생한 기욤 마망(Guillaume Marmin)은 리옹 2 대학교(University of Lyon II)에서 교육을 받은 후 아르피스 에콜(ARFIS École)에서 영화, 시청각 미디어 및 디지털 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처음부터 음악과 공연예술로 연결되는 그의 작업은 전통적인 형태의 스토리텔링과 공연매체를 뛰어넘어 비주얼 크리에이션의 부활을 보여줍니다. 실험적인 영화 제작자들의 영향을 받은 기욤 마망은 이미지와 소리, 리듬, 대비 및 날렵하게 움직이는 형상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공감각적 언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기 위해 마망의 작업에는 3D 조각 및 건물에 대한 매핑, 사진 및 스크린 인쇄에 대한 투사도, 움직이는 신체와 연기를 활용합니다. 건축가, 음악가, 조명 디자이너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그의 몰입형 대중 공간 작업은 무형에 신체를 부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현실의 수학적 기반에 순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기욤 마망의 작업은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구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실 표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Around the Island*), 기후 현상(*Après-nous le Déluge*), 건축(*Raster*), 물리학 패러다임의 역사(*Timée*)와 같은 주제를 통해 자연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서 오늘날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STELLAR ODYSSEY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인류의 시간 측정 방식의 근원에 있는 천문학적 현상에 경의를 표합니다. 매뉴팩처 초기부터 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형태의 문페이스부터 매우 복잡한 퍼페추얼 캘린더, 균시차, 스카이 차트, 달의 교점 주기와 근점 주기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정교한 시계 컬렉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양, 달, 항성이라는 세 가지 시간 측정법을 모두 마스터한 그랑 메종은 천체 현상을 나타내거나 예측까지 하는,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메커니즘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2023년 2월부터 몰입형 전시, 비주얼 아티스트 및 믹솔로지스트(mixologist)와의 콜라보레이션, 천체를 주제로 한 아틀리에 앙투안의 매혹적인 디스커버리 워크숍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테마 이벤트 시리즈, 스텔라 오디세이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선보입니다. 스텔라 오디세이를 통해 손목 위의 경이로운 마이크로 메커니즘으로 재해석된 우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